

목포시, '10cm 단위' 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서비스 개시

등록 2021.11.18 12:08:11



[목포=뉴시스] 목포시 버스위치정보 시스템. *재판매 및 DB 금지

[목포=뉴시스] 박상수 기자 = 전남 목포시의 버스위치정보가 더욱 정확하게 제공된다.

시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제공하는 '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시스템'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서비스 운영을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.

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단독 제공되는 '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시스템'은 위성항법시스템인 GNSS(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)를 활용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10cm 단위로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기존 서비스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(BIT)와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해 버스가 몇 분 후 정류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형태로 버스위치정보를 정류장 단위로 제공했다.

때문에 신호 대기, 도로 정체 등 실시간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.

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돼 목포시 교통정보 홈페이지 지도 화면상에 버스가 이동 중인 실제 위치와 경로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며, 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.

또한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버스 아이콘을 선택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속도와 목적지, 다음 정류장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.

초정밀 버스위치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'its.mokpo.go.kr'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.

시 관계자는 "버스 위치의 정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, 관광객 등 시내버스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parkss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